

---

---

# 1970年代 前半의 韓國製造業의 産業別 費用·價格管理分析

—費用의 價格轉嫁度 分析을 中心으로—

洪 炳 裕

▷ 目 次 ◁

- I. 序
- II. 基本模型의 展開
- III. 實證分析을 위한 資料의 構成
- IV. 實證分析의 結果
- V. 要約 및 結論

## I. 序

傳統的 微示經濟理論의 根本은 極大化理論이다. 즉, 消費者는 주어진 豫算範圍內에서 效用을 極大化하는 經濟行爲를 하고, 企業은 주어진 市場條件 안에서 利潤을 極大化하는 經營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概念은 數學的으로 精確하게 分析 發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經濟理論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數學的 方法에 의한 極大化理論은 인간의 行爲를 극단적으로 單純化시켰기 때문

---

---

에 現實世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一群의 經濟學者(또는 經營者)들은 인간의 行爲가 極大化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滿足者가 되어 그 수준에 安住하려는 非極大化 行爲가 人間行動의 現實性에 더욱 附合된다고 보고 있다<sup>1)</sup>.

H. Leibenstein은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보여진다. 그는 인간의 非極大化 行態에 관한 研究를 통해서 企業에서는 이윤을 증가시키거나 손실을 감소시킬 기회가 자주 무시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經營諮問에 의해 生産의이며 이로인한 經營技法이 도입된 후에도 과거의 열등한 經營으로 복귀하는 非極大化 行爲가 보편적이었음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極大化 또는 最適化意思決定을 基本假定으로 하지 않는 企業의 經營行態模型을 발전시켰다.

H. Leibenstein은 企業의 投入要素의 이용으로부터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와 實在의 효과간의 차이를 X-非效率(X-inefficiency)

---

筆者: 通信政策研究所 所長(本院 前研究委員)

1) R.A. Webber, *Management*, Richard D. Irwin Inc., p. 291.

로 정의하고 投入要素上의 非效率인 資源配分 非效率와 구분하였다. 동일한 投入要素를 결합하는 生産過程上에서 화폐로는 구입할 수 없는 賃金制度, 昇進制度 등을 통한 動機賦與의 차이로 인해 企業의 生産性은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되며, 이것이 바로 X-非效率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X-非效率은 資源配分上의 非效率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檢證되었다<sup>2)</sup>. 한편 X-非效率 수준은 변하지 않고도 企業과 消費者의 慣性的 經濟行態, 契約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그의 模型의 장점은 종래의 인플레이션理論이 相對的 價格變動만을 설명하는 데 비해 絕對的 價格水準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는 經濟行爲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전의 理論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交渉力(bargaining power)을 主要變數로 취급하여 實際의 契約에 있어서 企業은 費用增加를 市場에 轉嫁시키기 쉬운 쪽으로 작용함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效率的인 企業이 반드시 生存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交渉力을 행사하는 企業이 生存할 기회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費用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價格에 轉嫁하든 또는 타의적으로 轉嫁하든 企業은 이러한 經營環境下에서 企業內의 X-非效率에 무감각하게 되며, 따라서 企業은 費用節減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費用을 절감시켜도 이를 價格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하게 된다<sup>3)</sup>. 따라서 費用과 價格 관계에는 一方向性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本稿는 韓國製造業의 費用·價格行態가 이러한 一方向性을 갖는 것임을 시사하는 統計的 檢證을 시도하고, 이러한 費用과 價格 사이에 존재하는 一方向性的의 구체적 關係를 測定함으로써 產業別로 費用의 價格轉嫁度를 導出した 뒤, 產業別 諸特性과의 擴斷面的인 相關關係分析을 통해서 企業經營行態에 관한 政策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誘導하고자 한다.

第Ⅱ章에서는 企業의 價格轉嫁度를 測定하기 위한 理論的인 근거를 설명하고 第Ⅲ章에서는 本稿에서 사용한 資料에 대해 설명하였다. 第Ⅳ章에서는 實證分析의 결과에 대해 論하였는데, 여기서는 먼저 製造業의 產業別 價格轉嫁度에 대해 概略的으로 설명하고, 다음에는 產業別特性值(輸出比率, 輸入比率, 勞動分配率, 出荷額集中率, 附加價值集中率, 賃金上昇率 등)와의 相關關係分析을 통하여 전반적인 企業의 價格經營行態에 대해 논하였다. 끝으로 第Ⅴ章에서는 要約과 結論을 실었다.

## Ⅱ. 基本模型의 展開

產業別로 企業의 價格轉嫁度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假想的 企業의 「풀 코스트」價格(full cost pricing)과 實在의 價格을 알아야 된다. 產業別로 企業의 「풀 코스트」價格(full cost pricing)을 알기 위해 本稿에서는 金光錫의 不變價格 投入產出表를 이용하였다<sup>4)</sup>.

먼저  $p_{ij}$ 를 投入產出表의  $i$ 行,  $j$ 列의 價格디플레이터라고 하면, 이는 經常價格投入產出表

2) H. Leibenstein,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ER*, June, 1966 pp. 392~415.

3) H. Leibenstein, *Infl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X-Efficiency Theory*, Barnes & Noble Books, New York, 1969, p. 72.

4) 金光錫, "産業聯關表의 1968年 不變價格으로의 換價",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6.

의  $i$ 행,  $j$ 列 값을 不變價格投入產出表의  $i$ 행,  $j$ 列 값으로 나눈 指數이며 이는  $i$ 産業에 投入되는  $j$ 産業製品的의 價格指數를 의미한다. 따라서  $j$ 産業의 總投入要素의 價格指數는 다음과 같이 된다.

$$\sum_{i=1}^n p_{ij} \cdot a_{ij}^0 \dots\dots\dots (1)$$

- $i$  : 投入產出表의  $i$ 行  
( $i=1 \dots n$ )
- $j$  : 投入產出表의  $j$ 列  
( $j=1 \dots m$ )
- $a_{ij}$  :  $i$ 行,  $j$ 列의 投入係數
- $p_{ij}$  :  $i$ 行,  $j$ 列의 價格指數
- 1 : 比較年度
- 0 : 基準年度

企業의 「풀 코스트」價格(full cost pricing)은 費用의 增加分만큼 價格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假想的인 「풀 코스트價格」(full cost pricing)은 式(1)이 된다. 따라서  $j$ 産業의 假想的 「풀 코스트」價格과 實際價格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된다.

$$\sum_i p_{ij} \cdot a_{ij}^1 - p_j^1 \dots\dots\dots (2)$$

$p_j^1$  : 比較年度의  $j$ 産業製品價格

式(2)는 다음과 같이 變形될 수 있다.

$$\begin{aligned} & \sum_i p_{ij}^1 \cdot a_{ij}^1 - p_j^1 \\ &= \sum_i p_{ij}^1 \cdot a_{ij}^0 - \sum_i p_{ij}^1 \cdot a_{ij}^1 \end{aligned}$$

여기서 兩邊을  $p_j^0 (= \sum_i p_{ij}^0 \cdot a_{ij}^0)$ 로 나누면,

$$\frac{\sum_i p_{ij}^1 \cdot a_{ij}^1}{\sum_i p_{ij}^0 \cdot a_{ij}^0} - \frac{p_j^1}{p_j^0}$$

$$= \frac{\sum_i p_{ij}^1 \cdot a_{ij}^0 - \sum_i p_{ij}^1 \cdot a_{ij}^1}{\sum_i p_{ij}^0 \cdot a_{ij}^0} \dots\dots\dots (3)$$

式(3)에서 左邊의 첫째 項은 生産函數가 변하지 않았다고 假定했을 때의 순수한 費用더하기式 價格指數比率(full cost mark up pricing ratio)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項은 基準年度와 比較年度 사이의 實際價格上昇比率을 나타낸다. 따라서 左邊은  $j$ 産業의 비용의 價格轉嫁度를 나타낸다. 式(3)의 右邊에서 分子는 基準年度에서 比較年度 동안 生産函數의 변화로 인한 費用節減分이 가격에 반영된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右邊은 觀察對象 기간동안 價格에 반영된 費用節減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式(3)의 右邊이 의미하는 바는 生産性 증가의 三分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生産性의 증가는 첫째, 여기에 참가한 勞動者에게 직접 지불되어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 둘째, 지속적인 生産性 향상을 위해 再投資되며 셋째, 가격을 낮춤으로써 生産性 증가가 느린 部門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所得向上에 기여하게 된다. 式(3)의 값이 陽일 경우 絕對價格의 하락을 통해 위의 세번째 分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式(3)의 값이 零일 경우, 生産性 증가와는 관계없이 投入要素의 單價上昇이 모두 가격에 반영됨을 뜻하는 「풀 코스트」價格管理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값이 陰일 경우, 生産性 증가와는 관계없이 投入要素의 單價上昇率보다 價格上昇率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投入產出表에는 中間投入物部門과 附加價值部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式(3)의 右邊을 두 部門으로 나누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rac{\sum_i p_{ij}^1 \cdot a_{ij}^0 - \sum_i p_{ij}^1 \cdot a_{ij}^1}{\sum_i p_{ij}^0 \cdot a_{ij}^0}$$

$$= \frac{1}{\sum_i p_{ij}^0 \cdot a_{ij}^0} \left[ \left( \sum_{i=1}^k p_{ij}^1 \cdot a_{ij}^0 + \sum_{i=k+1}^n p_{ij}^1 \cdot a_{ij}^0 \right) - \left( \sum_{i=1}^n p_{ij}^1 \cdot a_{ij}^1 + \sum_{i=k+1}^n p_{ij}^1 \cdot a_{ij}^1 \right) \right]$$

$$= \frac{1}{\sum_i p_{ij}^0 \cdot a_{ij}^0} \left[ \left( \sum_{i=1}^k p_{ij}^1 \cdot a_{ij}^0 - \sum_{i=1}^k p_{ij}^1 \cdot a_{ij}^1 \right) + \left( \sum_{i=k+1}^n p_{ij}^1 \cdot a_{ij}^0 - \sum_{i=k+1}^n p_{ij}^1 \cdot a_{ij}^1 \right) \right]$$

$i=1 \dots k$  : 中間投入物部門의 産業

$i=k+1 \dots n$  : 附加價值部門에 속하는 項

따라서 式(3)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frac{\sum_i p_{ij}^1 \cdot a_{ij}^0}{\sum_i p_{ij}^0 \cdot a_{ij}^0} - \frac{p_j^1}{p_j^0} = \frac{\sum_{i=1}^k p_{ij}^1 \cdot a_{ij}^0 - \sum_{i=1}^k p_{ij}^1 \cdot a_{ij}^1}{\sum_i p_{ij}^0 \cdot a_{ij}^0} + \frac{\sum_{i=k+1}^n p_{ij}^1 \cdot a_{ij}^0 - \sum_{i=k+1}^n p_{ij}^1 \cdot a_{ij}^1}{\sum_i p_{ij}^0 \cdot a_{ij}^0} \dots (4)$$

式(4)의 右邊은 觀察對象 기간동안, 가격에 반영된 費用節減分을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值的 두 部門으로 나타내고 있다. 附加價值에는 賃金, 利子支給, 企業內 利潤 등이 있으므로 式(4)는 企業의 價格管理 行態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式이 된다.

附加價值部門의 費用節減分이란 賃金의 上昇, 利子率의 上昇 또는 企業內剩餘利益의 增加目的 등에 의한 附加價值增加壓力을 製品價格에 반영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값이 陽이 되면, 企業은 실제 附加價值的 增加壓力을 生産性의 향상 등으로 흡수하여 商品價格의 증가를 어느 정도 相殺시켰음을 의미

하며, 이것은 그 産業에 있어서 企業의 X-非效率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 값이 陰이 되면 X-非效率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中間投入物部門의 費用節減分이란 中間投入物의 價格增加를 商品價格에 轉嫁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값이 陽이면 企業은 中間投入物의 價格上昇을 자체내에서 흡수하는 경영으로 商品價格의 상승을 어느 정도 相殺시켰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그 産業내의 X-非效率은 감소된다. 반대로 이 값이 陰이 되면 그 産業내의 X-非效率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 III. 實證의分析을 위한 資料의 構成

本研究의 計量的 분석을 위해서는 不變價格으로 換價된 우리나라의 産業聯關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産業聯關表는 韓國銀行이 작성한 것으로서 현재 10個年度 것이 있다<sup>5)</sup>. 이 중 1960, 1963, 1968, 1970, 1975, 1980年の 6個年度는 實測表이며 나머지 年度의 表는 外插技法(extrapol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작성한 簡易延長表이다. 한편 1955, 1963, 1970, 1973, 1975年の 經常價格産業聯關表는 1968年 基準의 不變價格으로 換價되었다. 그런데 1955, 1963, 1968年の 産業聯關表는 作成基準이 나머지 年度와 각각 달라 本研究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970, 1975年の 實測表와 1973年度의 外插技法에 의한 延長表가 채택되어, 2個年度씩 結合하여

5) 年度別로 보면, 1955, 1960, 1963, 1966, 1968, 1970, 1973, 1975, 1978, 1980年の 것이 있다.

세 가지의 조사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은 1個의 완전한 景氣變動週期(1969.12~1974.2)와 第1次 오일 쇼크로 인한 高物價, 低成長의 後退收縮期(1974.2~1975.6)가 포함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비용의 價格轉嫁率이 景氣의 膨脹期와 收縮期에 크기가 다르다면 이 기간은 收縮期的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製造業成長率은 年 17.3%로서 他期間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收縮期的 特性은 어느 정도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産業分類는 가능한 한 細分類된 資料를 사용하고자 했다. 1970年의 KDI産業聯關表는 342部門, 118部門, 53部門으로 되어 있으며, 1973年은 1970年의 것과 같다. 1975年 産業聯關表는 394部門, 118部門, 53部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不變價格産業聯關表는 各年度 모두 118部門과 53個部門만이 있으므로 本研

究에서는 118部門의 資料를 사용하였다. 한편,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의 産業分類는 1970年과 1973年은 340個部門, 1975年은 392個部門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각각 118個部門으로 統合, 調整하였다. 또한 産業別 出荷額集中率, 附加價值集中率, 賃金 등의 資料는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의 資料를 118個部門으로 統合, 調整하여 얻었다.

## Ⅳ. 實證分析의 結果

### 1. 價格轉嫁率의 計測

産業別로 價格轉嫁率을 計測하기 전에 먼저 製造業全體에 대하여 價格轉嫁率을 계산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産業을 統合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내포한다. 즉, 個別産業의 價格轉

〈表 1〉 製造業의 産業聯關表(1968年 不變價格)

sector \ 年度	1970	1973	1975
中間投入物總計	1045072.91 (0.674483)	1937618.31 (0.653339521)	2898680.59 (0.6508705)
總附加價值	504369.76 (0.32551689)	1028096.13 (0.3466605)	1554863.51 (0.3491295)
總投入	1549442.67	2965714.22	4453543.68

註: ( )안의 값은 投入係數

〈表 2〉 製造業의 産業聯關表(經常價格)

sector \ 年度	1970	1973	1975
中間投入物總計	1224926.75 (1.1720969)	3028364.50 (1.56293140)	7384692.53 (2.54760478)
總附加價值	572638.77 (1.135355)	1278134.19 (1.2432049)	2634703.01 (1.694491506)
總投入	1797566.15 (1.160137245)	4306497.70 (1.452094632)	10019395.09 (2.2497579)

註: ( )안의 값은 1968年 價格으로의 換價値, 즉  $p_1$ 를 의미한다

嫁度の特性이 서로 相殺되어 平均化된 特性 만이 나타나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製造業은 生産性 증가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産業이기 때문에 비록 個別 産業의 特性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價格轉嫁度の 調査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1〉은 1970年과 1975年의 製造業의 産業 聯關表를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値의 投入額으로 구분하여 1968年 不變價格으로 나타낸 表이다. 〈表 1〉의 괄호 내의 값은 投入物의 投入係數를 나타낸다.

〈表 2〉는 1970年과 1975年의 製造業의 産業 聯關表를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値 投入額으로 구분하여 經常價格으로 나타낸 表이다. 여기서 괄호 내의 값은 各投入物의 1968年 不變價格換價指數를 나타낸다.

〈表 3〉에 의하면 1970年에서 1975年 사이에 費用의 增加率은 1.956배임에 비해, 價格의 增加率은 1.939배로서 費用增加率보다 0.017배 낮다. 그러나 企業의 生産活動을 나타내는 附加價値部門에서는 오히려 價格增加率이 費用增加率보다 0.0345배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

部門에서 價格上昇式 經營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한편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價格增加率이 費用增加率보다 0.052배 낮음으로써 이 部門에서는 費用上昇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經營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두 部門이 서로 相殺되어 純費用吸收率은 0.017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75年의 기간은 景氣收縮期間이 더 많았는데 만일 景氣循環의 위치에 따라 費用과 價格의 變化速度가 다르다면 위에서 얻은 결과는 指數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價格上昇이 好景氣에 費用增加를 앞지르고, 不景氣에는 이와 반대가 된다면 總費用의 吸收率이 陽(+ )이 됐다는 것만으로 韓國製造業의 費用管理行態가 費用極小化的이라고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前章에서 논한 바와 같이 景氣變化의 위치에 따라 價格轉嫁度는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本章에서는 製造業 80個部門에 대한 상대적인 特性만을 논하고 다음에 이들 價格轉嫁도와 産業別特性值와의 相關關係分析을 통해 製造業의 價格管理行態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表 3〉 製造業의 價格轉嫁度

		檢證期間		
項 目		1973/1970	1975/1973	1975/1970
① 費用增加率	$\left( \frac{\sum_i p_{ij}^1 \cdot a_{ij}^0}{\sum_i p_{ij}^0 \cdot a_{ij}^0} \right)$	1.257485332	1.550769295	1.95658132
② 價格增加率	$\left( \frac{p_j^1}{p_j^0} \right)$	1.251657628	1.549319067	1.939217028
③ 中間投入物의 價格轉嫁度	$\left( \frac{\sum_{i=1}^k p_{ij}^1 \cdot a_{ij}^0 - \sum_{i=1}^k p_{ij}^0 \cdot a_{ij}^0}{\sum_i p_{ij}^0 \cdot a_{ij}^0} \right)$	0.028484408	0.0043317348	0.051851924
④ 附加價値部門의 價格轉嫁度	$\left( \frac{\sum_{i=k+1}^n p_{ij}^1 \cdot a_{ij}^0 - \sum_{i=k+1}^n p_{ij}^0 \cdot a_{ij}^0}{\sum_i p_{ij}^0 \cdot a_{ij}^0} \right)$	-0.022657537	-0.002881506	-0.034487632
⑤ 價格轉嫁度	(③+④)	0.0058268706	0.001450228	0.01736427

먼저 製造業 80個部門을 中間投入物의 價格轉嫁度,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 그리고 이들을 합한 價格轉嫁度の 부호에 따라 <表 4>와 같이 6個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위 <表 4>에서 그룹 1은 나머지 그룹보다는 費用節約의인 價格經營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룹 6은 나머지 그룹보다는 價格轉嫁式經營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룹 2에서 그룹 5까지는 價格轉嫁도가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值部門에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경우 부호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 구별하였다.

<表 5>는 각각 1970~73年, 1973~75年의 그룹別 産業數와 각 그룹이 製造業全體生産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表 5>에서 볼 때, 全體製造業의 약 절반 정도의 분야가 中間投入物에서는 費用吸收의이나,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의인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類型에 속하는 대표적인 産業으로는 清凉飲料, 담배, 醫藥品, 化粧品, 事務 및 서비스機械業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70~73年度와 1973~75年度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費用吸收의에서 價格上昇의인 경영으로 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오일쇼크 기간의 급격한 原資材價格上昇에 편승하여 企業이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는 경영을 했

<表 4> 그룹別 價格轉嫁度の 特徵

	中間投入部門의 價格轉嫁度 (A)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 (B)	(A)+(B)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絹織物, 衣服, 시멘트産業 등은 계속적인 費用吸收의 價格管理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基礎化學製品, 基礎鐵鋼製品, 合成樹脂製品産業 등은 價格上昇式 經營의 대표적인 産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절대적 數值的 의미보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크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産業의 價格管理 特性을 논하기 위해서 本稿에서는 産業別 價格轉嫁도와 産業別 特性 즉, 産業別 附加價值集中率, 出荷額集中率, 輸出·輸入比率, 勞動所得分配率, 賃金上昇率 등과의 相關關係分析을 시도하였다.

分析結果 대체로 相關關係의 절대치는 작게 나타났으나 相關關係의 有意性이 인정되면 相

<表 5> 그룹別 産業數와 生産額比重

그룹	1970~73		1973~75	
	産業數	生産額比重	産業數	生産額比重
1	10	0.22	5	0.09
2	40	0.43	36	0.41
3	3	0.08	6	0.15
4	17	0.18	11	0.12
5	6	0.05	12	0.14
6	4	0.04	10	0.09

<表 6> 産業別 規模와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r_{ss}$	$r_{si}$	$r_{sv}$
1970~75	0.15437	0.16738	-0.00178
1970~73	0.03468	0.03173	0.00365
1973~75	-0.02671	0.15928	-0.15353

註:  $r_{ss}$  調査年度의 産業別 附加價值集中率의 平均과 總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si}$  調査年度의 産業別 附加價值集中率의 平均과 中間投入物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sv}$  調査年度의 産業別 附加價值集中率의 平均과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關關係의 방향이 중요하므로 이를 통해 産業別 價格管理行態를 파악할 수 있다<sup>6)</sup>.

〈表 6〉은 産業別 附加價值集中率과 産業別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分析結果이다. 1970年에서 1975年 사이 産業別 費用의 價格轉嫁指數와 附加價值集中率과는 陽의 相關關係( $r_{sz}=0.154$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大企業型産業일수록 費用節減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值로 나누어 볼 때 中間投入物部門은 陽의 相關關係를 나타내나 附加價值部門에서는 零에 가깝다. 이는 企業의 실제적 활동을 나타내는 附加價值部門에서 企業規模에 따른 費用節減行態의 차이는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3年의 오일쇼크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는, 1970~73年期間에서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值部門 모두에서 零에 가까운 相關係數를 보이고 있으나 1973~75年 사이에서는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陽의 相關關係( $r_{sz}=0.159$ )를 나타내어 大企業型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의 이용과정에서 費用節減의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겠으며, 附加價值部門에서는 陰의 相關關係( $r_{sz}=-0.154$ )를 나타내어, 大企業型産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價格上昇式 經營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中小企業型産業에서는 附加價值部門의 費用上昇을 흡수하는 경향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두 부분의 효과가 相殺되어 企業規模와 費用節減 行態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70年代 前半의 우리나라 製造業의 費用節減行態를 살펴 볼 때, 第1次오일쇼크가 오기 전 1973年까지의 好景氣期間中에는 企業의 크기에는 따른 費用節減 行態上的 차이는 없었으나 1973年에서 1975年의 費用急上昇期間에는 大企業型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 쪽에서는 費用節減的이었으나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式 經營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中小企業型産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好景氣期間中에는 企業이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費用管理面에서 유리하며, 이로 인해 企業의 費用節減行態는 별 차이가 없으나, 費用의 급격한 上昇時에는 첫째, 大企業型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의 價格管理 能力이 더 크며 둘째, 전체적으로 原料節約이며 附加價值가 큰 産業으로의 構造轉換이 시도되며 셋째, 大企業型産業일수록 평상시의 企業內 X-非效率이 컸기

6) 本稿에서 채택한 相關係數는 Pearson의 方法에 의한 係數이다 이제 相關係數를  $p$ 라고 하고 이때의 觀測 值의 數를  $n$ 이라고 하면 다음 식의  $T$ 값은  $t$ -分布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 = \sqrt{n-2} / \sqrt{1-p^2}$$

따라서 위의  $T$ 값이 신뢰수준  $\alpha$ , 자유도  $n-2$ 의  $t$ -分布 表上에서의  $t(\alpha, n-2)$  값보다 크면 相關係數  $p$ 는 유의적이며, 작을 경우에는  $p=0$ 이라는 假說이 채택된다. 本研究에서는 80%의 신뢰도, 자유도는 대체로 72~75인데, 이때의  $T$ 값은 약 0.84정도이며, 자유도에 72서  $T$ 값이 0.84가 되는  $p$ 값은 약 0.098이다. 즉 相關係數가 0.098보다 크면 이 係數는 신뢰도 80%수준에서 유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相關係數의  $t$ 檢定에 관한 참고서적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Noether G.E.(1967) Elements of Nonparametric Stat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表 7〉 産業別 市場構造와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r_{M,z}$	$r_{M,i}$	$r_{M,v}$
1970~75	0.08347	0.02887	0.04284
1970~73	0.14912	0.10362	0.03644
1973~75	-0.11819	0.06803	-0.13140

註:  $r_{M,z}$ : 産業內 上位 4社의 出荷額 加重平均集中率과 總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M,i}$ : 産業內 上位 4社의 出荷額 加重平均集中率과 中間投入物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M,v}$ : 産業內 上位 4社의 出荷額 加重平均集中率과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때문에, 中間投入物部門에서 費用節約的이며 附加價值部門에서 價格上昇的이라고 볼 수 있다.

〈表 7〉은 產業別 出荷額集中率과 產業別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分析結果이다. 1970年에서 1975年 사이 各相關係數 값은 절대값이 0.1미만으로서 무시할 정도이나, 1970~73年 期間에는  $r_{Mt}=0.15$ ,  $r_{Mi}=0.10$ ,  $r_{Mv} \approx 0$ 으로 獨占型產業일수록 다소 中間投入物部門에서 費用節約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3~75年 期間에서는  $r_{Mt}=-0.12$ ,  $r_{Mi}=0$ ,  $r_{Mv}=-0.13$ 으로서의 오히려 獨占型產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價格上昇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獨占企業의 費用上昇 인플레이션은 景氣循環의 收縮期에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獨占型產業일수록 中間投入物部門에서 費用節約的管理行態가 檢證된 것은 일반적인 獨占企業의 價格操作力假說과는 다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表 8〉 產業別 輸出比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r_{e,t}$	$r_{e,i}$	$r_{e,v}$
年度			
1970~75	0.08362 (0.04872)	-0.01689 (-0.10847)	0.12884 (0.11428)
1970~73	-0.03597 (-0.09872)	-0.06975 (-0.20609)	0.02153 (0.06906)
1973~75	0.06138 (0.02218)	-0.04977 (-0.13990)	0.08087 (0.13440)

註: ( ) 안의 숫자는 輸出比率의 增減(比較年의 輸出比率-基準年의 輸出比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e,t}$ : 基準年·比較年 產業別 輸出比率의 平均과 總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e,i}$ : 基準年·比較年 產業別 輸出比率의 平均과 中間投入物費用의 減少率과의 相關關係

$r_{e,v}$ : 基準年·比較年 產業別 輸出比率의 平均과 附加價值減少率과의 相關關係

첫째, 獨占企業일수록 成長速度가 빨라 規模의 經濟에서 얻은 原資材生産性的의 증가로 中間投入物部門에서 費用節約的의 管理行態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둘째, 獨占企業일수록 好景氣中 政府의 價格規制로 인하여 1970~73年 期間中에는 費用의 증가를 충분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였다가( $r_{Mt}>0$ ) 1973~75年의 費用上昇期에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r_{Mt}<0$ ). 그 결과 1970~75年期間의 獨占型產業의 費用節約度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表 8〉은 產業別 輸出比率과 產業別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分析結果이다. 1970~75年 期間中  $r_{e,t}=0.08$ ,  $r_{e,i}=-0.09$ ,  $r_{e,v}=0.13$ 으로서 相關關係의 크기는 작지만 輸出比率이 높을수록 中間投入物에서는 價格上昇的이며 附加價值部門에서는 費用節約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輸出產業의 경우 關稅還給 등의 이유로 原資材의 管理를 비교적 철저히 하기 때문에 費用節約的의 여지가 별로 없는 반면 非輸出產業일수록 상대적으로 中間投入物의 管理改善 여지가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輸出產業일수록 海外의 價格競爭으로 인해 費用吸收가 附加價值部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은 係數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70~73年과 1973~75年期間에도 그대로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다. 한편 1970~75年 사이에 輸出比率은 產業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輸出比率의 變化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도 조사했다. 相關係數는 〈表 8〉의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 輸出比率의 變化率과 價格轉嫁度와의 相關係數들도 위의 相關係數와 같이 부호는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다. 이는 곧 輸出比率의

7) 1970~75年 사이 產業別 出荷額集中率과 成長率과의 相關關係는 0.14~0.15 정도로 檢證되었다.

變化率보다는 輸出比率 자체만으로도 企業의 價格轉嫁行態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9〉는 産業別 輸入比率과 産業別 價格轉嫁度와의 相關分析結果이다. 1970~75年의 相關係數는 모두 零에 가까와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0~73年 期間에는  $r_{B,i} < 0$ ,  $r_{B,v} < 0$ 인 반면, 1973~75年에는  $r_{B,i} > 0$ ,  $r_{B,v} < 0$ 으로서 1970~73年에는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의인 데 비해 1973~75年에는 中間投入物部門에서 費用節減的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景氣의 好循環期에는 輸入比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海外로부터의 價格上昇 壓力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附加價值部門에서 人件費, 其他 諸經費 등을 절약한 결과, 附加價值部門에서 節減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表 10〉은 産業別 勞動生産性의 변화와 産業別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分析 結果表이다. 1970~75年의 相關係數는 1970~73年의 그것과 유사하나, 1973~75年의 相關係數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73年의 勞動生産性 增加가 年平均 15% 정도에서 1973~75年에는 年平均 6% 정도로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中間投入物部門에서의 費用節減 노력이 附加價值部門(특히 賃金)으로 변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1970~73年의 中間投入部門의 費用節減的 현상은 勞動生産性 增加가 빠른 産業일수록 原資材生産性 增加도 빠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勞動生産性增加가 빠른 産業일수록 成長이 빠르며 市場支配의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3~75年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을 흡수함에 있어서 勞動生産性 增加가 느린 産業일수록 中間投入部門에서 費用節減的 行態가 강한 반면 이를 附加價值部門에서 흡수하여 가격에 반영하는 힘은 약하다는 것을 나타

〈表 9〉 産業別 輸入比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r_{B,t}$	$r_{B,i}$	$r_{B,v}$
1970~75	0.02086 (-0.00849)	0.03199 (0.03976)	-0.00691 (-0.03477)
1970~73	0.11842 (0.08091)	-0.06761 (-0.05271)	0.13057 (0.09364)
1973~75	-0.03676 (0.15155)	0.20272 (0.04837)	-0.19758 (0.05206)

註: ( )안의 숫자는 輸入比率의 增減(比較年의 輸入比率-基準年의 輸入比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B,t}$ : 基準年·比較年의 産業別 輸入比率의 平均과 總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B,i}$ : 基準年·比較年의 産業別 輸入比率의 平均과 中間投入物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B,v}$ : 基準年·比較年의 産業別 輸入比率의 平均과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表 10〉 勞動의 附加價值 生産性指數와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r_{p,t}$	$r_{p,i}$	$r_{p,v}$
1970~75	-0.07428	0.08045	-0.11372
1970~73	-0.06777	0.08916	-0.10885
1973~75	-0.04625	-0.12051	0.07533

註:  $r_{p,t}$ : 産業別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指數와 總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p,i}$ : 産業別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指數와 中間投入物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p,v}$ : 産業別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指數와 附加價值部門과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表 11〉 勞動의 所得分配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r_{D,t}$	$r_{D,i}$	$r_{D,v}$
1970~75	-0.00214	-0.06016	0.04120
1970~73	-0.14447	0.18043	-0.22567
1973~75	0.10358	-0.14175	0.18629

註:  $r_{D,t}$ : 産業別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指數와 總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D,i}$ : 産業別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指數와 中間投入物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D,v}$ : 産業別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指數와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낸다. 또한 각 기간마다 總費用節減行態와 勞動生産性 增加速度와의 相關係數( $r_{P_i}$ )의 絕對値는  $r_{P_i}$ ,  $r_{P_o}$ 보다 낮으면서 모두 陰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勞動生産性 增加가 빠른 産業일수록 다소 價格上昇의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表 11〉은 産業別 勞動所得分配率과 産業別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分析 結果이다. 1970~75年 사이 實質勞動所得分配率에 따른 費用의 價格轉嫁度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970~73年과 1973~75年의 相關關係가 서로 相殺된 結果로 보인다. 즉 1970~73년에는 實質勞動所得分配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部門에서 費用節減의인 반면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3~75년에는 이와 반대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勞動生産性的 增加率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勞動所得分配率이 높을수록 企業側에서는 原價上昇의 壓力을 賃金を 포함하는 附加價值部門에서 흡수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12〉는 産業別 實質賃金增加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分析結果인데, 1970~75年과 1970~73年 期間에는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3~75년에는

〈表 12〉 實質 賃金增加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

相關關係 年度	$r_{w,i}$	$r_{w,o}$	$r_{w,v}$
1970~75	-0.06410	0.01388	-0.05860
1970~73	-0.05599	0.03661	-0.06481
1973~75	0.20081	0.00065	0.12368

註:  $r_{w,i}$ : 産業別 實質賃金增加率과 總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w,o}$ : 産業別 實質賃金增加率과 中間投入物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r_{w,v}$ : 産業別 實質賃金增加率과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

두 부문 모두 費用節約的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일쇼크 기간에 實質賃金의 上昇幅이 큰 産業일수록(또는 實質賃金의 下落幅이 작은 産業일수록) 相對的으로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的인 것을 나타낸다.

## V. 要約 및 結論

前章에서 分析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年과 1975年 사이 우리나라 製造業의 純費用吸收率은 指數上으로는 0.017이나 好景氣와 不景氣의 가격과 費用의 變化推移를 고려할 때 대체로 費用더하기式 價格管理(mark up pricing)라고 結論지을 수 있다. 그러나 價格轉嫁率을 附加價值와 中間投入物로 나누어 볼 때,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이 費用增加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價格上昇率이 同期間의 費用增加率을 밀돌았다. 즉,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製造業은 70年代 前半에 中間投入의 費用上昇을 흡수하는 價格經營을 했으나, 賃金, 利子支給, 利潤 등으로 구성되어 實質的인 企業의 生産活動을 나타내는 附加價值部門에서는 의도적으로 價格上昇을 誘導하는 價格管理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産業別 附加價值集中率과 産業別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를 볼 때, 1970年과 1975年 사이, 陽(+ )의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이는 大企業型産業일수록 費用節約的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附加價值部門에서는 相關關係가 없으며 단지 中

間投入物部門에서 陽의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이것은 大企業일수록 中間投入物의 費用上昇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결국 費用節減은 이 部門에서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한편 이 기간 사이의 오일쇼크를 기준으로 1970~73年과 1973~75年으로 나누어 相關關係를 조사해 본 결과, 1970~73年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部門에서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3~75年의 경우 中間投入物部門에서 陽의 相關關係가 나타났고 附加價值部門에서는 陰의 相關關係가 나타났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費用節減行態의 차이가 없으나 급격한 費用上昇時에는 大企業에서는 中間投入物의 費用節減이 選好되며 상대적으로 中小企業에서는 附加價值部門의 費用節減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째, 産業別 出荷額集中率과 産業別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相關關係를 조사해 본 결과 1970~75年 사이에서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73年의 경우 中間投入物部門에서 相關關係가 陽으로서, 獨占型産業일수록 다소 中間投入物의 이용과정에서 費用節減의임을 의미한다. 한편 1973~75年의 경우는 中間投入物部門과의 相關關係는 약화되었으며, 附加價值部門에서는 陰의 相關係數로서, 오일쇼크 기간중 獨占型産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價格上昇式 經營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獨占型産業일수록 大企業型産業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위의 두번째의 결과와 일치한다.

네째, 輸出比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관계는 대체로 相關係數는 작지만, 中間投入物의 價格轉嫁度와는 陰의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附加價值部門의 價格轉嫁度와는 陽의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오일쇼크 기간에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輸出産業일수록 原資材의 輸入依存度가 커서 그 管理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費用增加를 흡수할 여지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增加를 흡수시키는 經營方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輸入比率은 1970年에서 1975年 사이 價格轉嫁度와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73年과 1973~75年 사이에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值部門의 相關係數는 각각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 1970~73年의 경우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陰의 相關係數를 나타냈고 附加價值部門에서는 陽의 相關係數를 나타냈다. 한편 1973~75年의 경우 相關係數의 부호는 1970~73年의 係數와 각각 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輸入比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景氣의 上昇時에 海外로부터의 原資材購入이 어려워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이를 附加價值部門의 費用節減으로 相殺시키는 經營을 해왔음을 의미하고, 둘째, 오일쇼크 기간에는 輸入比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輸入去來處의 多邊化를 통해 어느 정도 原資材價格上昇壓力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式 經營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費用더하기式 價格管理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勞動生産性과 費用의 價格轉嫁度와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陰의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으나, 中間投入物部門은 陽의 相關關係며, 附加價值部門은 陰의 相關關係이다. 이는 勞動生産性이 높은 産業일수록 費用의 價格轉

轉嫁는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産業일수록 附加價值 쪽(특히 賃金部門)의 價格上昇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대적으로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費用節減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期間別로 相關關係를 조사한 결과 勞動生産性이 전체적으로 빨리 증가한 1970~73年 期間은 대체로 1970~75年 期間과 같으나, 勞動生産性增加率이 낮은 1973~75年 期間은 두 부문의 相關關係가 1970~75年 期間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勞動生産性 增加가 낮을수록 企業은 附加價值(특히 賃金)部門에서 가격을 낮추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中間投入物에서는 價格上昇式 經營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勞動의 所得分配率과 費用의 價格轉嫁度는 1970~75年 사이에 相關關係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期間別로 볼 때 1970~73年の 경우 勞動所得分配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은 費用節減의이며 附加價值部門은 價格上昇式이다. 1973~75年の 경우는 각각 1970~73年과 반대로 나타났다. 두 期間 모두 附加價值部門의 相關係數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好景氣일 때는 勞動所得分配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의 價格上昇(특히 賃金의 上昇)이 빨리 이루어져 企業은 이를 相殺시키기 위해 中間投入物의 費用節減을 꾀하는 경영을 하나 전체적으로는 價格上昇式 經營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오일쇼크 기간에는 企業은 勞動分配率이 높은 産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을 꾀하면서 상대적으로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價格上昇을 誘導하는 經營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實質賃金增加率은 1970~75年 期間

中 企業의 費用價格轉嫁도와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期間別로 볼 때 1970~73年の 경우는 1970~75年の 경우와 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1973~75年の 경우 賃金上昇率이 큰 産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費用의 급격한 상승시에 賃金上昇率이 큰 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보다는 賃金を 포함하는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을 꾀하는 價格管理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說明한 바에 의해, 1970年代 前半의 우리나라 製造業의 價格管理行態를 概略적으로 特徵지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製造業들은 대체로 費用上昇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費用轉嫁式 價格經營(cost pass along pricing)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費用轉嫁의 내용면에서 中間投入物과 附加價值로 나눌 경우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費用吸收式 價格管理가 있었으나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式 經營이 있다고 볼 수 있다. 附加價值는 대체로 賃金, 利子支給, 企業內 利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部門에서의 費用上昇이 있는 경우 企業은 이러한 上昇値보다 더 큰 폭의 價格上昇을 유도하는 經營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産業別 特性値에 따라 費用의 價格轉嫁 내용을 관찰한 결과 대체로 獨占의 大企業型 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의 費用上昇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附加價值部門의 費用上昇(賃金의 上昇, 利子率의 上昇, 企業內 利潤의 確保 등)에는 價格轉嫁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年代 前半에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을 감

안할 때 大企業일수록 企業內 X-非效率이 상당히 컸으며, 또한 X-非效率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中小企業의 경우 中間投入物에 대한 價格管理 機能이 적으며, 따라서 中小企業은 附加價值部門의 費用管理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中小企業일수록 附加價值部門에서 費用節減의 경향이 大企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네째, 期間別로 볼 때 1970~73年은 景氣의 上昇 局面이며 동시에 原資材의 價格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期間중에 대체로 企業의 價格經營은 「풀 코스트」價格管理(full cost pricing)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原資材의 급격한 價格上昇이 있었던 1973~75年 期間中에는 大企業型産業일수록 中間投入物部門에서는 費用節減의이고 附加價值部門에서는 價格上昇의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費用이 급증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價格決定能力이 있는 大企業일수록 中間投入物의 價格上昇壓력을 中小企業에 轉嫁하거나 海外로부터의 購入의 多邊化로 費用上昇을 흡수하였으나 賃金の 상승, 또는 企業擴張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內 利潤의 확보 등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 결과적으로는 費用極大化的인 價格管理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일쇼크 기간중 大企業일수록, 또는 獨占企業일수록 企業內 X-非效率은 커졌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X-非效率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大企業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政府의 保護·育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保護·育成은 大企業으로 하여금 그들

의 企業 內部에 있는 X-非效率에 무관심하게 하였으며, 企業側에서는 成長의 수단으로 의도적인 價格上昇을 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價格의 상승은 大企業에서의 賣出利益을 크게 하며, 이것은 企業內部 利益을 크게 해서 새로운 成長을 위한 政府의 支援을 확보하는 데에 擔保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대체로 1970年代 前半의 우리나라 製造業中 大企業의 價格決定은 利潤極大化에 의한 價格決定이 아니라 費用더하기式 價格決定(mark up pricing)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獨占的이며 大企業集中的인 産業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최초로 海外로부터의 價格上昇 壓力이 있으면, 이것은 企業으로 하여금(비록 價格上昇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價格上昇의 이유가 되며 이렇게 價格上昇된 製品은 다른 企業의 價格上昇 理由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大企業일수록 價格上昇에 의한 利益은 커지며 政府의 支援 아래 더욱 擴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1973~75年 사이의 급격한 인플레이션(他國에 비해)은 企業의 이러한 價格管理行態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本論文의 調査對象에서 제외되었지만 1979~80年의 급격한 인플레이션도 企業의 이러한 價格管理行態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될 때, 企業內의 X-非效率의 重要性은 크다고 판단된다.

우선 企業內의 X-非效率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政府의 企業支援은 신중하게 선택되어 保護産業育成, 또는 防衛産業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國內에서의 競爭誘導가 힘든 것은 輸入의 自由化를 통해 점차

競争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세째, 慣行的 企業經營, 또는 族閥式 企業經營에서 탈피하여 專門的인 企業經營人에 의한 企業經營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本研究의 調査對象 期間이 비록 1970年代 前半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은 우리나라 企業

의 價格管理行態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70年代 前半과 1980年代의 經濟狀況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本研究를 더욱 擴張해 1980年代 까지 比較分析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있는 結果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 ▷ 參 考 文 獻 ◁

金光錫, 「産業聯關表의 1968年 不變價格으로의 換價」, 『韓國開發研究』, 1979. 6.

金圭洙, 『産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查報告 第80-04卷.

金栽元, 『韓國製造業의 産業別 生産構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 第82-03卷.

金迪教, 孫讚鉉,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産性分析(1966~1975)』, 韓國開發研究院, 研究調查報告 第79-01卷.

洪炳裕,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 第83-09, 1983. 9.

洪炳裕, 『韓·日 企業經營比較』, 韓國開發研究院, 政策報告 84-02, 1984. 4.

De Alessi, Louis, "Property Rights, Transaction costs, and X-Efficiency; An Essay in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83, p. 64~81.

Leibenstein, H.,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6, p. 392~415.

\_\_\_\_\_, *Infl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X-Efficiency Theory*. Barnes & Noble Books, New York, 1969.

\_\_\_\_\_, *General X-Efficiency Theory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8.

\_\_\_\_\_, "Economic Decision Theory and Human Fertility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81. 7, p. 381~400.

Nelson, R.R. and S.G. Winter,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2.

Noether G.E. *Elements of Nonparametric Stat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Primeaux, Walter J. Jr, "An Assessment of X-Efficiency Gained through Competi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1977, p. 105~108.

Webber R.A., *Management*, Richard D. Irwin Inc., 1975.